



금남로, 예술가들의 야외작업실 518번 버스는 움직이는 공연장

오는 8월8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된다. 국내·외에서 참여하는 100명의 예술인은 옛 전남도청 분수대와 금남공원 사이 도로에서 홍성담 작가의 치유 곳을 시작으로 각자 가로 90cm, 세로 259cm 크기의 광목천에 '518에서 세월호까지'를 주제로 밤 새워 그림을 그린다. 각자의 작품이 만들어지면 두 작가의 작품을 합쳐 세로 518cm 크기의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이 작품들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전시에서 만장 형식으로 함께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퍼포먼스 중 하나인 '오월길을 여는 100인의 5·18 릴레이 아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8월8일부터 금남로, 광주역, 5·18버스, 오월길 등 역사적 장소와 공간에서 광주의 오월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전시, 강연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중 하나인 퍼포먼스는 '달콤한 이슬, 오월길(5·18 Road) 위에 내리다'를 주제로 크게 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큐레이터를 맡았다.

8월8일 밤 9시30분~12시30분과 8월9~10일 오후 5~7시에는 금남로와 오월길 코스에서 국제퍼포먼스아트 'LOOK TOGETHER'가 펼쳐진다. 5·18 등 국가 폭력을 주제로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전달하는 퍼포먼스 김광철씨를 비롯해 성능경·박경화·임동창(이상 한국), 안토니 크라와우스키·아티 그라보스키(이상 폴란드), 로시오 불리버(멕시코), 넌 그라타(에스토니아), 리카르도 말라카스(이탈리아) 등 퍼포먼스 작가들이 참여한다.

■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퍼포먼스로 만나는 오월' 국내외 예술가 100명 금남로 1박 2일 만장 행사 풀리 '광주사랑방'에서 '버스 일상 프로젝트' 열려

■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 프로젝트 퍼포먼스

퍼포먼스	시간	장소
오월길을 여는 100인의 '5·18 릴레이아트'	8월8일 오후 9시	금남로 일대
국제퍼포먼스아트 LOOK TOGETHER	8월8일 오후 9시30분 8월9-10일 오후 5시	금남로 등 오월길 코스
518아트버스	8월8일-11월9일	518버스 내
오월가족해원퍼포먼스	8월8일-11월9일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등
518 백주년 프로젝트 '미래코스'	8월16일 오후 7시	광주중앙초등학교 및 예술거리
광주 버스 일상 프로젝트	8월22일, 9월14일 오후 5시	518버스, 광주풀리 등
오월길 걸론 퍼포먼스 -달콤수레빠 -인디언 캠핑	8월23일 오후 5시18분, 9시	오월길 햇불코스 햇불코스 도착지
오월길 마당극 퍼포먼스 -보트피플(정의로운 천하극단 결판)	9월2일 오후 5시	광주역
-고추관아 게 셋거리(극단 결)	9월3일 오후 5시	광천터미널
-눈자라기(극단 꼭두광대)	9월4일 오후 5시	조선대정문 잔디밭
-연젠가 봄날에(놀이패 신명)	9월4일 오후 5시	광주공원 시민회관 앞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찌찌버거(극단 토박이)	9월4일 오후 7시30분	민들레 소극장

오월사적지를 코스로 움직이는 518번 시내버스도 예술작품으로 변신, 움직이는 공연장으로 이용된다. 고근호씨는 무등산 서석대를 배경으로 춤추는 주먹밥 아주머니의 나눔정신과 농약 길놀이가 상징하는 풍요의 이미지를 버스에 형상화했다. 11월9일까지 매주 월요일 아침 첫 버스에서는 주먹밥 아주머니의 주먹밥과 생수 나누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오후 5시18분에 맞춰 예술가들의 행위예술과 공연이 진행된다. 양림동 오월어머니집과 다형다방(8월8~22일)에서는 11월9일까지 오월어머니집과 부상자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지난 34년 세월의 아픈 여정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평화를 갖길 소망하는 전시다. 사진작가 김은주씨가 프로그래머를 맡

았다. 5·18 백주년 프로젝트 '미래코스'는 8월16일 오후 7시 중앙초 운동장과 예술의 거리에서 열린다. 이 퍼포먼스는 오는 5·18 백주년이 되는 2080년대의 미래 예술가들이 이날 광주를 방문해 미래의 오월길을 소개한다는 컨셉이다. 관람객들은 미래 예술가들과 오월길을 걷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접하게 된다. 참여작가는 강민형, 이동석, 정세영씨다.

8월23일 오후 5시18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오월길 햇불코스(금남로~전남대)와 전남대 봉지 일대에서 '오월길 걸론 퍼포먼스'가 열린다. 오월길을 따라 5개의 수레빠(음료 등을 설치된 수레)가 지나면서 개성 넘치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펼치고, 봉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디언캠핑' 행사를 열어 '늑대와 함께 춤을', '인디언코스튬'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8월22일과 9월14일 오후 5시 518번 버스와 풀리 광주사랑방에서 시민들과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광주 버스 일상 프로젝트'가 열린다.

또 9월2일 오후 5시 광주역에서 열리는 '정의로운 천하극단 결판'의 '보트피플'을 시작으로 '극단 결'의 '고추관아 게 셋거리'(9월2일 오후 5시 광천터미널), '극단 꼭두광대'의 '눈자라기'(9월3일 오후 5시 조선대 정문 잔디밭), '놀이패 신명'의 '연젠가 봄날에'(9월4일 오후 5시 광주공원), '극단 토박이'의 '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찌찌버거'(9월4일 오후 7시30분 민들레 소극장)가 공연되는 '오월길 마당극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담양서 700년 전통 가사문학 되살린다

'오늘의 가사문학' 창간

"700년 전통 가사문학을 오늘에 되살린다."

가사문학의 고장 담양에서 계간 '오늘의 가사문학'(고요아침)이 창간됐다. 지난 2011년 11월 한국가사문학관이 설립된 지 13년 만에 가사를 주축으로 하는 계간지가 창간됨으로써 담양은 제2의 가사문학 중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문학은 한문이 교양의 척도이자 출세 도구였던 시절, 우리말을 통해 사상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던 대표 장르다. 시조의 단어함과 응축성과는 대비되는 자유롭고 유장한 율문을 특징으로 한다.

창간호 특집으로 류연석, 김신중, 박영주 교수가 각각 '새로 쓰는 가사문학사', '누정기행-송강정', '가사 작가 인물전-위대한 민족 시인, 송강 정철'을 선보였다. 기획물로는 김용찬, 최상은 교수가 '가사 명품 산책'과 '최초의 가사들'을 소개했다.

이밖에 송수권 시인의 문화산책 '남



간다.

편집주간을 맡은 최한선 전남 도립대 교수는 "향가, 시조, 가사, 민요, 무가, 한시 등 한국시가 사상 존재했던 역사적 갈래들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며 "가사는 시심의 자연스러운 발로이자 한 맺힌 절규였으며 사실의 기록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한편 '오늘의 가사문학'은 담양군의 후원,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와 한국가사문학관의 도움을 받아 발행될 예정이다. 또한 담양군과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는 매년 학술대회와 낭송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한국가사문학상을 제정 매년 시상할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는 8월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대나무 물총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나주박물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5~15일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주변에서 관찰한 동·식물의 색을 이용해 화폭을 꾸미는 '박물관에서 찾은 자연의 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6일에는 가족 대상으로 마한의 역사와 그들의 부엌 살림을 공부하는 '마한 사람들의 부엌이야기'가 진행된다.

또 7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나는 여름 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열린다. 찰떡꿀, 질경이, 대나무 등을 이용해 왕관, 제기, 물총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 8일에는 '내 손으로 그리는 마한의 보물'을 주제로 나주박물관 소장 유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시들을 둘러본다. 이 밖에도 15일까지 '내가 발견한 풍경 3D 입체 액자 만들기', '금은보다 귀했던 마한의 옥(玉)'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naju.museum.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수는 8월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재료비는 무료~3000원이다. 문의 061-330-782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착하고 정직한 먹거리를 위해
직접 검증하다!

먹거리 X파일

매주 금요일 밤 11시

MC 김진 채널A기자

http://tv.ichannela.com/culture/xfile
02 2020 3333~4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